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루카 23,35-38)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젤리코(Fra Angelico),  
산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제1독서] ..... 2 사무 5,1-3

[화답송] ..... 시편 122(121),1-2.4-5  
(◎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2독서] ..... 콜로 1,12-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루카 23,35L-4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73] 만민의왕 그리스도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178] 성체앞에

• 파견성가: [75] 주 그리스도 우리 왕

##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35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The rulers sneered at Jesus and said,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osen one, the Christ of God.”

Even the soldiers jeered at him.  
As they approached to offer him wine they called out,  
“If you ar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Above him there was an inscription that read,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Now one of the criminals hanging there reviled Jesus, saying,  
“Are you not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The other, however, rebuking him, said in reply,  
“Have you no fear of God,  
for you are subject to the same condemnation?  
And indeed, we have been condemned justly,  
for the sentence we received corresponds to our crime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criminal.”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e replied to him,  
“Amen,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 묵상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 영도자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보여 주듯이, 그분의 왕권은 십자가 주위에서 펼쳐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세례 때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는 명패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팻말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예수님의 왕직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즉위식에는 늘 두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루카 9,28-36), 예수님의 부활 사화에서는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루카 24,4). 그러나 골고타의 즉위식에는 단지 천박한 강도 둘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시한 즉위식에 오르신

왕은 끝까지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즉위식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적들과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왕권을 통해, 뉘우치는 강도를 아버지의 나라로 받아들이시고, 뉘우치지 않는 완강한 적들도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시며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봉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 참 임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루카복음 23,35-43)

페터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는 플랑드르에서 가장 명성을 누렸던 바로크 시대 화가입니다. 그는 미술에서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도 탁월했습니다. 또 그의 그림은 전문가에게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린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뿔속까지 사무치는 슬픔을 전해 줍니다. 이 그림은 루카복음 23장 33~43절과 요한복음 19장 16~37절이 그 배경입니다. 성경말씀처럼 이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윗부분은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아랫부분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부제목이 '창'입니다.

먼저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쪽에는 나쁜 강도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절규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루카 23,39) 그의 절규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죽음에 대한 분노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선한 강도는 그를 꾸짖고 나서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그의 애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반영하듯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 라는 죄명 패가 붙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섯 상처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립니다. 그분은 죽어 있지만 그분의 근육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강도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 그분은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 세상의 참 임금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죽는 순간에 참 임금이신 그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쁜 강도처럼 분노와 저주로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착한 강도처럼 회개와 희망으로 대하겠습니까?

이제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숨지신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군인과 처형자들이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애도하는 어머니와 추종자들이 다른 한 부류입니다. 또 그분의 죽음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터번을 쓴 지도자와 구경꾼이 마지막 한 부류입니다. 구경꾼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루카 23,35) 그들의 말투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Peter Paul Rubens, 1577~1640

예수님께 대한 조롱과 빈정거림만 있을 뿐입니다. 추종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성모님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예수님의 죽음을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기도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모님의 간구 또한 죄인들의 구원 아닐까요? 사도요한은 성모님께 기대어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못처럼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상기된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발에서 흐르는 선혈을 보고 두 팔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녀를 놀라자빠지게 할 기가 막힐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형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증지부를 찍기 위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군사들이 한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루카 23,37) 그들의 말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처형자입니까? 추종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손용환 신부, 성경 미술관)

## 워싱턴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글짓기 대회 하상 한국학교 대거 입상

편지쓰기 부문 최우수상, 짧은 글짓기, 글짓기 부문 우수상

워싱턴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글짓기 대회에서 하상 한국학교 학생들이 대거 입상했다. 지난 12일 재미 한국학교 워싱턴 지역 협의회(WAKS)가 주최하는 한국학교 글짓기 대회가 21개 학교에서 총 181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하상 한국학교(교장 백인현 신부)에서는 모두 12명이 참가해 편지쓰기 부문에서 이혜나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박재은 학생(글짓기 부문)과 남경래 학생(짧은글짓기 부문)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요 부문에서 11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입상자들은 트로피와 메달, 부상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 ▶ 최우수상 (편지쓰기): 이혜나
- ▶ 우수상 (짧은 글짓기): 남경래 ▶ 우수상 (글짓기): 박재은
- ▶ 장려상: 박지후, 오승원, 김윤서, 나유리, 나유미, 추민서, 장예은, 엘레나 데이비스



## 11월 단체장 회의

11월 단체장 회의가 지난 13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룬다”는 말씀(로마서 12, 4-8)을 설명하며 각 단체들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체별 10월 행사 결과 및 11, 12월 계획과 안건 발표가 있었다.



## 2016년 11월 20일(일) ‘자비의 희년’ 폐막



2016년 11월 20일(일)은 2015년 12월 8일 개막한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폐막일이다. 지난해 12월 8일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을 시작으로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성문이 열린 다음, 차례로 로마의 다른 대성전과 세계 모든 교구의 주교좌 본당과 순례지 성당 문이 열렸다. 희년 종료를 알리는 폐막 예식은 반대 순서로 진행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까지 닫으면 전 세계 교회가 1년 동안 지내온 자비의 희년이 종료된다.

## 꼬미시움 월례회의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단장 김국 스테파노) 월례회의가 지난 13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있었다. 목주 기도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상급평의회 소식, 백인현 주임 신부님 훈화 및 강복, 리치몬드 꾸리아를 비롯한 3개 꾸리아와 순결하신 어머니 브레시디움의 사업발표 및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1월 27일에 예정된 가두신교 워크숍과 12월 4일에 열린 연차총친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 11월 소공동체 모임 소식

지난 11월 12일(토)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는 루카 복음(21,5-19)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묵상 나누기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라우든 구역 2반



권진혁 요한/ 권미경 모니카 부부 집에서 9가정 22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 생활을 하며 다가오는 대림절을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우드브릿지 구역

이경구 그레고리오 형제 집에서 7가정 9명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 ‘주님께서 오시는 날 후회하지 않는 삶의 자세’에 대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루 하루 행복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프린스윌리엄 구역



소재웅 요셉/소난희 마리아 부부 집에서 14가정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 합당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기도와 언행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친교 시간에는 장 베로니카 자매가 정성껏 준비한 족발을 나누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애난데일 구역 2반



8가정 11명의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한 11월 모임에서 지금까지 모든 유혹을 잘 이겨낸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자고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알렉산드리아 구역



이제선 베드로 형제 집에서 10가정 16명이 모인 소공동체 모임에서 ‘나를 비우며 산다는 것은 인내와 희생이 따르며 그 속에서 굳건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 비엔나 구역



구역 합동 소공동체 모임에 25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음 묵상으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위한 송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 *Congratulations on your Confirmation!* ✠



Congratulations to our teens who were confirmed by Bishop Timothy P. Broglio, Fr. Baek and Fr. Seong on Tuesday, November 8, 2016:

Aaron Whang, Alexis Park, Alyssa Kim, Andrew Choi, Daniel Choe, Isabell Kim, Jung Won Han, Matthew Hargrave, Minjoo kim, Peter Chu, Saechan Hong, Sean Linzey, Sojung Pak, Thomas Yoo, Stephen Hwang and Youngjin Yi.

Deepest appreciation to catechists Rosaria Shin and Teresa Lee for the guidance, prayers, and support that brought these students to this special day. God bless you.

*To celebrate the end...*

“I will not leave you Orphans..”(Jn.14:18) says the Lord...  
 Congratulations to All St. Paul Chung Confirmation Class 2016!!!  
 Ye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you are Now, evermore given a Virtue to *Seek God's Will*, and a Virtue to *Do God's Will*, to Witness for the Lord Jesus Christ, and His Bride, the Holy Catholic Church...  
 Yes, Congratulations to All our New Ambassadors for the Holy Church!

*Rosaria Shin, Catechist*

Hi class!  
 Have you breathed a sigh of relief yet, now that you've finished Confirmation classes? Good! So have I. (Just kidding!)  
 You guys, it's truly been a privilege to help you prepare for Confirmation. Although most of you came to class looking like you were coming to detention, I really looked forward to our Wednesday classes. You guys are very special to me and I know I learned a lot more from you all than you've learned from me and I want to thank you for that.  
 You guys have worked really hard to prepare for Confirmation and I'm so proud of you. Congratulations to every one of you on getting confirmed! (Smile. You are now free from having to recite prayers every week!) Regards,

*Theresa Lee*

“I feel happy because my relationship with God feels closer. Our teachers are so nice and so is the Priest!.” - **Alexis Park** (*Cecilia*)

“I felt amazed because I was suddenly an adult in the church.” - **Aaron Whang**

“Now that I am a member of the church, I will keep to my Catholic Faith and spread the words of Jesus Christ, our Lord.” - **Peter Chu**

“I felt grateful from Confirmation. I felt grateful because of how the teachers spent their time to make us ready to be confirmed and how with this sacrament I am closer to God. Without this sacrament, my connection with God would be weaker and it would be harder for me to reach and talk with God.” - **Andrew Choi**

“Being confirmed has brought me a new sense of responsibility to being recognized as an adult in the church. I also feel happy that I am finished with the Sacraments of Initiation and I am closer to God.” - **Sojung Pak**

“I feel accomplished to be finished with the Sacraments of Initiation and I feel closer to God. And I am also grateful for my confirmation teachers.” - **Nicole Kim** (*Nicole*)

“I am grateful I did confirmation. Before I got confirmed I was pretty stressed out. But after confirmation I felt very good and relieved. When I got anointed with chrism, the holy oil, I felt dizzy but I was ok. Now I feel closer to God and I am happy that I am confirmed. I would like to thank the Confirmation teachers for helping us and sticking by our sides.” - **Saechan Hong**

“Confirmation has made me feel happier because I have now been made an adult in the Catholic life. My faith with God has been expedited by this important sacrament which God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receive. I am forever in debt for all of my teachers who have guided me throughout this sacrament of initiation.” - **Isabell Kim** (*Maria*)

“After taking confirmation I feel like I've learned lots of things and I feel as if I've become more humble and I am thankful for the teachers for helping me through all of it. I am thankful that I am now closer to God and I can become a Godmother for others. Thank you.” - **Amy Kim**

“I feel great that I have completed confirmation and am now an adult in the church. I am soooooo~~ thankful that the teachers have helped me complete confirmation.” - **Matthew Hargrave**

**1. Looking for basketball coaches**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2.No classes (Thanksgiving Breaks)**

•When : Nov 23 (Wed) & Nov 27 (Sun)

1 전신자 대림 특강

특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2월 2일(금) 오후 7:30 미사 후</li> <li>• 주제: "빈방 있습니까?"</li> <li>• 강사: 임현욱 가브리엘 신부</li> </ul>
특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2월 6일(화) 오후 7:30 미사 후</li> <li>• 주제: "하느님 사랑 안에서 내 신앙고백"</li> <li>• 강사: 박민서 베네딕도 신부</li> </ul>

2 대림 합동 고해 성사

• 일시: 12월 14일(수)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7시-오후 9시

3 하상회

• 일시: 11월 20일(일) 오전 11:30 (B-3,4)

4 안나회

• 일시: 11월 20일(일) 오전 11:30 (A-1,2,3,4)

5 레지오 마리에 가두선교 워크숍

• 일시: 11월 27일(일) 오전 11:30 (A-1,2)

6 레지오 마리에 연차총친목회

• 일시: 12월 4일(일) 오후 6시(친교실)

• 대상: 행동단원 • 신청 마감: 11월 27일

7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1월 20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8 주일학교 임원회

• 일시: 11월 20일(일) 오후 1시

9 베드로회

• 일시: 11월 20일(일) 오후 1시(B-3,4)

10 Quo Vadis(성소자 모임)

• 일시: 11월 20일(일) 오후 1시(B-1,2)

11 K of C 정기모임

• 일시: 11월 27일(일) 오전 11:30(B-1,2)

12 요한회 정기총회

• 일시: 11월 27일(일) 오전 11:30(B-3)

• 안건: 사업보고, 회계보고, 차기회장 선출, 친교

• 참석 대상: 50대 교우

• 문의: 윤봉근 도미니코 (703)307-7939

13 K of C 토막 특강

• 일시: 11월 27일(일) 오전 11:30-12:00(B-1,2)

• 주제: "겨울철 심장관리"

• 강사: 이혁찬 루카 •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1월 20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안나회(11:30, A 1-4), 하상회(11:30, B-3,4), 꾸리아월례회의(11:40, 하상관#4,5), 주일학교 임원회의(13:00), 베드로회(13:00, B-3,4), 성소자모임(13:00, B-1,2)
21일(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22일(화)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에(20:00, 친교실), 하상성인학교 휴강, 예비자 교리(20:00), 성령기도회(20:00, 도서실)
23일(수)	연중 제34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9:30, 친교실), 첫 영성체반 휴강
24일(목)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추수감사절, 사무실 휴무
25일(금)	연중 제34주간 금요일	하상성인학교 휴무, 사무실 휴무, CLC, 프란치스코(20:00)
26일(토)	연중 제34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에(9:30, 친교실), 혼배미사(오후 4시, 성당), M.E. 봉사자 모임(19:00)
27일(일)	대림 제1주일	요한회 정기총회(11:30, B-3), 가두선교 워크숍(11:30, A-1,2), K of C 토막 특강(11:30, B-1,2), 주일학교 휴강

14 동전모으기 저금통 배부(복지부 주관)

• 불우 이웃 돕기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11월 20일부터 배부할 예정입니다. 대림시기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공헌 대축일(1월 8일)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15 하상 성인학교 휴강

•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주간 동안 휴강합니다. • 휴강일: 11월 22일(화), 11월 25일(금), 11월 27일(일)

16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종강식 및 발표, 전시회

• 일시: 12월 4일(일) 11:30 (친교실, B-1,2 & A-2,3) 가을학기 동안 수업한 과목별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참석하시어 즐겁게 관람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명희 울리아나 교장 (703) 217-2775

17 2016년 미 동중부 2차 성장세미나 (성령기도회)

• 일시: 11월 25일(금) - 11월 27일(일) • 주제: "자비와 회복의 여정" • 장소: Holy Trinity Retreat Center (8400 Park Heights Ave, Baltimore, MD) • 문의: 조혜원 글로리아 (402) 639-6262

18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 2017년 매일미사 구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 꾸르실료 동중부 지구 울뜨레야

• 일시: 11월 20일(일) 오후 3시-오후 10시 • 장소: 성 정 바오로 성당 • 꾸르실료사파 회원분들은 꼭 참석하시어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광노덕 도미니코 (703)608-9664

20 2016년 동중부 M.E 송년파티

• 일시: 12월 3일(토) 오후 7:30 - 11:30 • 장소: 성 정 바오로 성당 • 2016년을 마무리 하면서 ME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이조 베로니카 (703) 864-1236

21 K of C 연말파티

• 일시: 12월 18일(일) 오후 5:30 • 장소: PJ Skidoo Restaurant • 일인당: \$50 (특별 경품권과 사은권 준비) • 비회원도 환영합니다. • 문의: 김 버나드 (703)342-2194

22 청국장 가루 주문

• 성모회에서 청국장 가루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 문의: 장 에디타 (703) 973-7159

**2차헌금 (11월 19일, 20일)**  
이번 주일은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11월 24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톤즈에서 온 편지: 200일간의 아프리카 남수단 봉사 이야기 (16회)
  - 인터뷰 / 아, 사람!: 희생을 노래하는 생활성가 가수 정완진 사도요한
  - 명불허전: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인천에서 노숙자와 빈민들에게 10여년째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서영남 (베드로)님의 이야기 (3부)

하상 성인학교 무료 강좌 안내

- 하상 성인학교 생활교실에서 전 교우를 대상으로 무료 강좌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 (1) 풀리지 않는 일
- (2) 상실을 슬퍼하기 "치유, 회복, 성장"
- (3) 차매 "지워져 가는 기억"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하나?
- 강사: 심 안젤라
- 일시: 11월 29일(화) 오후 9:30-10:30, 하상관 # 110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

주일헌금	\$ 7,670.95
교무금	\$ 9,495.00
교무금(신용카드)	\$ 5,010.00
특별헌금	\$ 1,520.00
2차 헌금	\$ 2,635.40
<b>합계</b>	<b>\$ 26,331.35</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해(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베오), 김영식(베드로), 임홍빈(미카엘), 양치모(요한), 양소자(루시아), 이숙(소화 데레사)
-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박철(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도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레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솔(루시아),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이영찬씨 자: **이상민(필립)**  
◆ 서경원씨 녀: **서 크리스티나**

- 일시: 2016년 11월 26일 (토)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주택용자, 재용자</b>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스카이 학원</b>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신디 리 부동산</b>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F teck connection, LLC</b>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마태오 흥 종합보험</b> <b>오바마케어</b>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찬들리 HYUNDAI</b>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b> <b>오바마 건강보험</b> 카이저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b>5분 도정</b>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b>임경옥 부동산</b>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b>Sola Salon</b> 조지 메이슨 앞 유니버시티몰 내 Studio #5 남자 헤어 컷 : \$10 703-868-9427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